

“『황제내경』과 성경의 질병치유이론 비교”에 대해서

성현창 (백석대학교)

의료기술이 열악하여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침, 뜸, 부항, 안마 등의 동양의술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시되어, 대부분의 신학대학원 등에서는 특강의 형식으로 수지침 등의 강좌를 개방하기도 한다. 또 일부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수지침과 뜸 등을 직접 행하여 교인관리나 전도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우려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자칫 잘못하면 바운더리가 허물어질 수 있는 일반은총이라는 잣대로 무비판적으로 용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에 문제의식을 갖고 방향을 제시하려는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부재, 기독교계의 동양사상에 대한 무관심, 몰이해 등으로 15년 가까이 진척이 없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발표가 기독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과연 이 발표문이 주제에 실린 중량을 담을 구조와 내용 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어쨌든 발표자의 노고에 주자학을 연구하는 논평자로서 격려를 보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논평자의 의무를 대신하려고 한다.

논평자가 이해한 본 발표문의 큰 틀은 『황제내경』이 정신작용도 육체인 오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등의 육체중심의 단일제로 파악하여 질병의 원인과 그 치유방식도 육체중심이고, 육체를 생명의 상징으로 파악하는 성경도 육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영혼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은 『황제내경』과 달리 질병의 원인과 치유방식이 영혼중심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를 발표자는 『황제내경』의 질병치유원리가 천인합일에,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있다는 사실에서 찾았고, 더욱 그 근거를 『황제내경』에서 인간을 “자연 즉 5운6기와 관계속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선악갈등과 탄생·성장·타락·회개·용서·받음이 연속되는 구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규정하는 데에 두었다. 논평자 나름의 이해가 틀리지 않다면, 『황제내경』에 정통하지도 않고,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능력도 없는 논평자의 입장에서 본 발표문은 소정의 결과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평가해 봅니다.

본 발표문은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할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해서 좀 더 내실이 있는 학위논문이 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하고자 한다.

1. “I. 시작하는 말”에 따르면 본 발표문의 목적은 『황제내경』과 성경이 모두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고 愛民사상을 주장하기 때문에 질병치유의 원리가 동일함을 밝히는 데 있다. 그리고 질병치유원리가 『황제내경』은 천인합일,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다. 그럼 천인합일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같음을 질병치유를 통해서 규명해야 한다. 과연 천인합일과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동일한지를 설명해 주면 한다.

2. 성경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논평자에게는 성경을 신학

적으로 이해할 능력이 전무하지만 예들 들어 12쪽(논평자에게 보내 온 발표문)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까하는 의문이 생긴다. 발표자가 인용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를 보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그 대답을 “그들에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어느 때의 사람인가. 바로 창조시의 사람이다. 즉 타락이전,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다고 한,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현현된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시의 선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던 때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상의 성경의 내용을 주자학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법인 창조의 선한 질서가 우리 마음 안에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재화된 선한 질서로의 자연법을 발명이 아니라 발견을 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질서를 창출해 가는 것이다. 발표자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자연 속의 진리와 질서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부여해 주었는데, 타락한 죄성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지적해 본다. 결국 질병치유를 담당하는 주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아니면 온전한 치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 나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질병치유는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동양에서 名醫은 언제 어디서나 神人, 聖人の 경지에 이른 상태에서 시술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명칭이다. 그리고 仁術이라는 말도 있다. 인이란 愛人(사람을 사랑함)이며 천지가 만물을 생성할 때 갖는 마음, 즉 天地之心이며, 그 마음은 만물이 생성될 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 갖추어진다. 혹시 『황제내경』에는 명의를 대한 설명이 있는지 궁금하다. 만약 있다면 명의를 속성을 통해서 앞서 질문한 천인합일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3. 논문의 가치는 그 논문이 지향하는 목적을 究明하는 과정이 선명했을 때, 그 내용의 진위를 떠나서,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본 발표문은 나름대로 논문을 지탱할 틀을 갖추고 있지만, 비교연구라는 말에 지나치게 안주한 탓인지 나열식 사실적 서술이 많다.

본 발표문에 의하면 분노, 기쁨 등의 감정이 5장 6부, 더나가서는 5운 6기와 깊이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노여움, 기쁨, 슬픔, 싫어함 등은 유교에서 7정으로 불리는 감정으로 마음(心)에 속한다. 사도바울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하여 출산할 場임을 강조한 말인지 모른다. 마음의 문제는 최근 학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본 발표를 계기로 발표자의 연구의 영역이 『황제내경』에서의 마음의 의미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 학계에 공헌하는 길로 이어지길 기한다.